

# 건강을 지키는 현장

부족하나마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눕니다.

장수군 주민 위한 무료진료 활동에 나선  
전주 예수병원, 장수교회, 건협전북지부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러나, 전북 장수군 소재의 장수교회, 전주 예수병원 의료선교회 건협 전북지부는 그들이 가진 것들—그것이 자신의 기술이건 물질이건 간에—을 조금씩 모아서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지난 해 3월부터 매월 1회씩 장수군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들의 이웃 사랑 실천이 지난 3월 27일로 꼭 1년이 되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들의 무료 진료 활동의 현장을 소개한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무료진료 1년째, 이웃사랑 응소 실천

지난 3월 27일, 장수교회(전북 장수군 소재)는 장수읍·천천면 등지에서 몰려 온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날은 전주 예수병원 의료 선교회, 장수 교회,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장수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이다.

이날 이곳에서 건강검사와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백50여명이었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예수병원의 의료진과 견협 검사팀은 모처럼의 주말도 잊고 밤늦도록 이곳에 머물렀다.

경제적 어려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진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이  
무료 진료활동이  
시작되었다.



## ◦ 1년동안 6백 70여명에 진료혜택

이들의 무료 진료 활동은 지난 해 3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교통의 불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장수군 지역주민을 위해 이 진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매월 1회씩 무료진료를

# 건강을 지키는 현장

해오고 있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진료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예수병원 의료선교회 회장인 유봉옥박사의 이야기이다.

유봉옥 박사(예수병원 중앙외과장·예수병원 부설 기독교의학연구원장)를 필두로 해서 내과·외과·마취과·방사선과·산부인과·치과·임상병리과 등 종합병원과 다름없이 구성된 의료진들은 매일 장수교회를 찾아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들에게 지난 한해동안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6백66명으로, 이들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매일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한해동안  
6백66명에  
진료 혜택을  
주었다.



## ◦ 건협 전북지부, 질병예방 통한 주민건강 위해 동참

한편 올해 들어 이 무료진료에 참가한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소변·심전도·혈액형·흉부 X-선 세포진 검사 등을 이들에게 실시해 주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3월 27일의 무료진료 1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검사 및 치료에서는, 그날 소요된 약값을 장수교회와 건협 전북지부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주민건강을 위한 이들의 사랑을 실감하게 해주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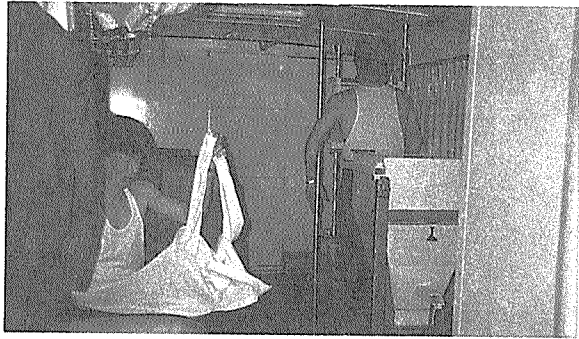
## 건강을 지키는 현장

주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병원이 무료진료를 한다기에 주민건강을 위한다는 뜻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도 무료진료활동에 참가하기로 했지요. 이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건협 전북지부 남상도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한편 이 무료 진료팀은 장수군내 교회 교역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부부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을  
위해  
건협 전북지부도  
이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 ◦ 부족한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

무료 진료팀에게 매일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장수군 주민들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무료 진료에 참가하고 있는 장수교회나 예수병원 의료선교회, 건협 전북지부가 가진 것이 유난히 많은 것도 결코 아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이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